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가정을 지키는 예배

성경: 야고보서 5장 13-16절

Tag:

13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14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약5:13-16)

오늘은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지금은 영적으로 가정이 위협을 받고있는 시대라 할 수 있다.

오죽했으면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되었다.

학생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데 교사들은 늘고 있는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교사들이라도 애들을 많이 낳아야 할 판)

출산율이 회복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2021년 0.84명. 한국 세계에서 170위 꼴등. 1위국가 7명 니제르 2020년.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행복한 나라인데, 북조선이 남한을 헬조선이라고 거짓말을 퍼뜨리니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가?)

우리의 소망. 젊은이들이 마음껏 결혼하고, 걱정 없이 아이들을 낳고, 어린이들은 꿈을 키우며 뛰노는 세상이 되고, 청소년들은 재능을 키워 사회에 나가 당당하게 경제활동도 하고 취미활동도 하는 세상이 되도록 기도하자.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건강한 나라를 만든다.

아빠는 아빠의 역할을 엄마는 엄마의 역할을 잘 해낼 때 아이들도 자기들의 역할을 잘하게 된다.

가정이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셨고, 복 주셨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다.

한국도 50년 후반부터 63년까지를 베이비 붐 시대였다.

그러나 70년대까지도 꾸준히 출산율을 유지하다가 산아제한 정책 때문에 주춤거렸다. 그때의 표어가 “하나 낳아 짧게 살고 좁은 땅 넓게 살자”였다.

1980년대는 남아선호가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사랑으로 낳은 자식, 아들딸로 판단 말자”

그러다 1990년부터 다시금 출산정책을 장려하기 시작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아기의 울음소리, 미래의 희망소리”, “허전한 한 자녀, 흐뭇한 두 자녀, 든든한 세 자녀”

이제는 급해진 요즘 정부의 표어는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형제입니다”

조만간 “아이 하나 낳으면 1억을 버는 겁니다.”라는 표어도 생길 지경이다. 아이 키우는 데 2억 듭니다. 라는 괴소문이 사람들을 더 위축시켰다. ‘낳아만 주면 정부가 키우겠습니다.’라는 표어도 생길 것 같다. 우리는 ‘낳는대로 양육비나 대 주시오’라고 맞받아쳐야 한다.

지금시대에 애를 낳으면 그야말로 대박을 칠 가능성이 크다. 애네들은 왕자와 공주처럼 키워질 것이고, 대학의 문과 취업의 문도 활짝!

(당신 퇴직 하려면 신입사원 한명 데려 오시오~ 그럼 여보게 우리 회사 들어오면 내 퇴직금 절반 줘세...)

그러나 사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인간들의 염려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애를 많이 낳을 때도, 애를 적게 낳을 때도 여전히 잘살기

위해서였다는 점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도와 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우리는 간혹 잊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다 잘 될 것이다. 취직 걱정하지 말라. 결혼 걱정하지 말라. 집 걱정하지 말라. 현재는 과거 어느 때 보다 더 좋은 세상임을 감사하자. 과거에는 지금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소한 일들로 고통스러웠고, 걱정스러워했다.

우리는 그때마다 열심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결국 우리나라는 그 문제들을 해결했고, 지금은 아주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다.

물론 여전히 당면한 문제들이 심각한 것들이 여전히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런 문제들을 이겨낼 것이다. 한국교회도 모든 율법주의를 벗어버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세계 수 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주택 문제 해결될 것이다. 불법 노동조합도 해결될 것이다. 노동자들이 더 이상 악한 지도부의 말을 듣지 않게 될 것이다. 간첩들이 북한 지령에 순복하지 않는 날이 올 것이다. 뒤떨어진 후진 정치문화가 선진 정치문화로 바뀔 것이다. 더 많은 대기업들이 일어날 것이다.

더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왜냐면 나쁜 사람들도 나쁜 짓하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듯이 앞으로도 이런 나쁜 사람들 때문에 가정이 위협받고, 아녀자들이 속아넘어가며, 자녀들에게 악한

풍습이 스며들고, 자유라는 이름으로 죄악이 자유롭게 길거리를 휩쓸고 다닐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여전히 가정은 위협을 받으며, 선한 자들은 악한 자들의 위협과 죄악의 유혹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가정을 지키는 예배가 필요하다. 가정예배는 사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성전이 훼파된 다음에 궁여지책으로 소중하게 여겨진 것이다. 그러나 가정예배가 결국 이스라엘을 살렸다. 가정예배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 그들은 금요일마다 가정예배의 촛불을 켜다.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셨다.

가정마다 문제없는 가정은 없다. 기뻐도 슬퍼도 가정예배가 가장 좋다.

13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가정예배를 통하여)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고난 당하는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찬송하라.

-그러나 사실 고난 당해도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한다. 그래야 병에 걸리지 않는다.

-또 기쁜 일이 있어도 찬송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오늘 본문말씀은 특별히 가정에서 이렇게 하라는 권면의 말씀이다. 각 가정에 고난 당하는 일이 있느냐? 기도하라. 그 가정에 즐거운 일이 있느냐? 찬송하라.

14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가정에 병든자가 있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난감한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교회의 지도자에게 도움을 청하라. 그들이 그 가정에 방문해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여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것이다. (요즘에는 주로 병원으로 심방감)

-심방가서 치유를 위해 예배하고 기도할 때 내 기억으로 낫지 않는 병은 없었다. (심방이란 가정예배를 위한 교회지원)

\*가정을 지키는 예배 (가정예배가 갖는 영적인 의미)

1.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예절

(우리나라에는 제사라는 전통이 있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일맥 상통한다. 물론 제사에는 미신적 요소가 많지만, 그래도 조상공경이 하나님 아버지 공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체효과가 크다)

2.하나님의 은총을 초청하는 공식 채널임(하나님도 공식적으로 응답할 명분이 생김)

3.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서로를 위한 기도가 됨)

4.공동체의 일원이라는 따뜻한 체험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돈독히 하게 됨-건강을 챙기고, 내 건강도 식구들을 위해서 챙기게 됨.)

\*가정예배의 유익.

- 신학은 아니라도 성경말씀 한구절이 소중하고 도움이 됨.
- 설교는 아니라도 찬송이 큰 위로와 깨우침이 됨
- 정신적으로 특히 영적으로 크게 안정이 됨
- 식구들끼리 약속을 지키는 것을 통해 가정에 질서가 회복되고 유지됨

## 가정예배 안내

예로부터 가정예배는 매우 유익할 뿐 아니라 참된 기독교 가정의 가장 바람직하고 경건한 삶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가정예배를 경험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습니다.

### <가정예배 가치관>

- \*교회는 큰 가정이고,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 \*초대교회는 가정예배에서 출발하였습니다.
- \*가정예배가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 \*가정예배도 영적으로 가장 안정되고 복된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 \*가정예배와 교회 예배당 예배는 서로 기능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 \*가정예배는 신구약 성경 안에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예배입니다.
-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그 가정에 임합니다.

### <가정예배 시간 준비>

- \*금요일 저녁; 한 주간의 일과를 마무리하는 시간. (최소한 한주에 1회)
- \*주1회(금), 주2회(수, 금), 매일(아침예배, 또는 저녁예배); 각 가정의 형편껏. 유익한 대로.
- \*구약 전통;안식일을 준비하는 시간
- \*신약 전통;예수님의 십자가와 대속적 희생을 기억하는 시간
- \*예배 인도자는 예배에 참여할 사람의 시간을 체크하여 모두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한다.
- \*예배 인도자는 예배 시간에 맞추어 모든 준비를 마치도록 한다.
- \*혹시 초대할 사람이 있다면 몇 시간 전에 참석여부를 확인한다.

### <가정예배 준비물>

- \*식탁 (식탁 장식용 성화 매트를 따로 정해 놓고 사용하면 좋음.)
- \*예배상(방 바닥에 앉아서 사용) -온라인 쇼핑몰에 있음.
- \*예배용 촛불 (교회에서 제공 예정)
- \*성경, 찬송
- \*스마트폰의 성경, 찬송
- \*찬송가mp3, 성경말씀 mp3(스마트폰)
- \*십자가 (식탁과 가까운 곳이나, 예배하는 장소의 적당한 벽에 걸어둠.)
- \*식사(형편에 따라서. 함께 식사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음.)

### <가정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 \*예배 인도자 (가정의 가장, 혹은 교회에서 임명한 자)
- \*참석자(식구, 동거인, 방문객)
- \*초대받은자(예배를 위해서 초대할 사람)

### <식사를 위한 준비>

- \*식사;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정성껏 요리를 준비할 수 있다.(시간에 주의)

미리 배달할 음식물을 정한 다음, 시간에 맞추어 주문할 수 있다.

음식 담당자가 가까운 음식점에 들러 음식을 사서 들어올 수 있다.

음식은 맛있는 것으로 준비하되, 정갈하여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음식으로 선정한다.

식사하는 도중에 조리가 되거나, 냄새가 많이 나거나, 먹기에 불편한 음식은 삼간다.

〈예배 순서;예배의 수준은 예배 참석자 중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이  
나, 신앙의 연조가 적은 사람을 중심으로 정한다.〉

\*예배 인도자가 촛불을 켜다(또는 예배인도자가 지목하는 사람)

\*식사기도 (예배 인도자가 식사를 위한 기도를 드린다. 부득이한 경  
우, 식사기도나 식사를 생략할 수 있음.)

\*식사<육의 양식> (식사중 대화;함께 식사하며, 한주간 동안의 일을  
나눈다.)

-식사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면, 식탁을 정리하고 물잔만 남  
긴다.(설거지는 나중에)

\*교독문 (찬송가에 있는 교독문을 1번부터 차례로 한 예배때마다  
하나씩 읽는다. 예배 인도자와 참석자 교독)

\*찬송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음)

\*성경읽기<영의 양식>

\*성경나눔 (자신의 감동이나 깨달음, 인도자의 설교, 해석에 대한  
토론)

\*기도의 시간(정해진 기도문 낭독;주보를 활용하거나 잘 마련된 기  
도노트 활용)

-특히 어린이로부터 시작해서 나이 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축복기도

\*주기도문

\*예배후 축복인사

\*식탁 정돈 / 촛불은 원하는 시간에 끄.

〈식사중 대화에 대한 지침〉

-예배인도자에게 대화의 주도권이 있지만, 참석한 모든 사람이 자연  
스럽고 부담없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대화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배려한다.

- 대화에 소극적인 사람이 있다면 예배인도자가 그 사람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만한 내용을 묻고 간단한 답을 유도해 낸다.
- 예배인도자가 대화를 잘 인도하는 사람을 지목할 수 있다.
- 주로 긍정적인 내용으로 대화하도록 한다.
- 대화의 내용;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감사한 일, 기도가 응답된 일, 기쁜 일, 다행스러운 일, 깨달은 일, 재미있는 일 등.
- 예배 인도자는 모두에게 건강한지, 걱정거리는 없는지, 다음주에 있을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묻는다.

### <성경나눔에 대한 지침>

가정의 형편에 따라 시간을 조절한다.

성경말씀을 이용해서 누군가에게 훈계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에게 적용해야 할 교훈이 있다면 깨달은 바를 말한다.

상대방의 말을 긍정적이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경청한다.

상대방의 말에 호응하고 칭찬한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고 싶어하시는 말씀에 집중한다.

### <필수 / 일반 / 식탁>

순서; 촛불켜기 / 감사기도 / 식사와 감사(감동) 나누기 / 교독문 /

찬송 / 성경읽기 / 성경나눔 / 기도(축복기도) / 주기도문



<찬양예배>

제목 :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성경: 시편 86편

Tag:

1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어려서부터 항상 가난하였고, 청년시절에는 대박을 꿈꾸며 목숨을 건 골리앗 싸움터에 나섰고, 영웅이 되었으나 여전히 가난하여 결혼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빙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200개를 가져왔으며, 결혼 후에도 데릴사위처럼 지냈고, 도망 다니면서는 거지처럼 지냈다. (시는 가난할 때 써진다는 말도 있다.)

2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가난해야 경건한 것은 아니다. (흔히들 착각하는 부분)  
-부자가 경건할 때 훨씬 더 영향력이 커진다.  
-물론 부자이면서 불경건한 사람도 많지만, 부자가 되어서 불경건한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  
-가난할 때의 경건은 생존을 위한 경건일 수 있다. 그는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 가난에서는 몸부림치듯 벗어나는 길 밖에 없다.  
-하나님은 게으른 가난한 자를 도우시지 않는다.  
-가난한 자는 부지런해도 부자의 반열에 올라가기가 어렵다. 왜냐면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

3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다윗은 가난하나 열심히 부르짖었다. 결국 가난한 자는 열심히 답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 훨씬 수월하고, 상황판단이 빠르면 속지 않게 되고, 관계가 좋으면 더 수월하다.

4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5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사죄와 용서는 마치 양파의 껍질과도 같다. 회개도 영적인 단계가 있다. 한 계단씩 오르면서 점점 경건해진다.

6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7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8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9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10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11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12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13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스올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14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았사오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15 그러나 주여 주는 공홀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16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여종의 아들. 다윗의 어머니는 경건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아마 많이 소외를 당하였으나, 계속해서 경건을 유지하는 여인이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다윗의 숨겨진 족보: 다윗의 어머니는 ‘나하스’의 아내였던 자?

25 압살롬은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군지휘관으로 세웠는데, 아마사는 이드라라는 이스마엘 사람의 아들이다. 이드라는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결혼하여 아마사를 낳았는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여동생이다. (삼하17:25)

15 여섯째 오셉과 일곱째 다윗을 낳았다.

16 이들의 누이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다.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 이렇게 셋이다.

17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는데,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에텔이다.

-다윗의 어머니는 계대결혼으로 이새와 결혼하여 다윗을 낳은 듯하다.(보아스처럼)

10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시 27:10)

17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시86:1-17)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